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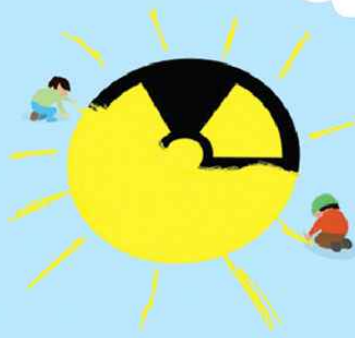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쏙!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망공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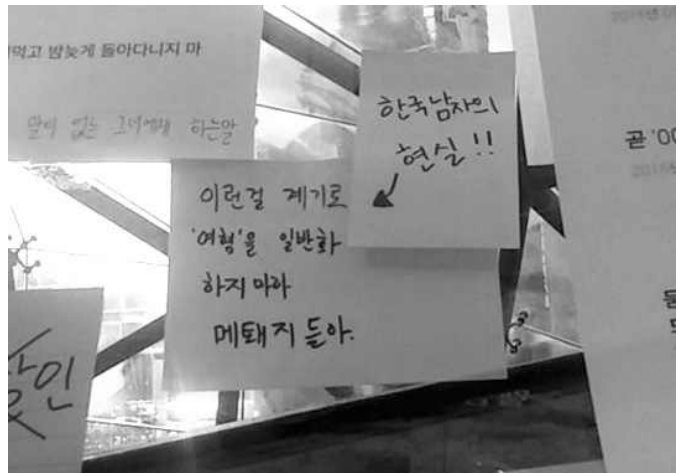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10대 뉴스 ⑤ ⑥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여성 혐오의 그늘

지난 5월17일, 23살의 여성이 서울 강남역 부근 빌딩의 공용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번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추모 메모지를 강남역 출구에 붙였는데요.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은 여성"이며 "언젠가 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는 과장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 논란이 커졌을 때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⑥ 개성공단 폐쇄...뒷걸음질 친 통일

북한이 올해 1월 6일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가 지난 2월 10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의 발전기는 멈춰서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게 위협수단이 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은 7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나 기업은 두 배가 넘는 1조50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가면 확대해갈수록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민족 번영의 대의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즉각 재개돼야 할 이유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28일(수) 1부 | "자로 열정 높이 사나 잠수함 충돌은 무리"

[오프닝] 10대 뉴스 ⑤ 강남역 여성 살해 ⑥ 개성공단 폐쇄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

-안종범 "박근혜, 정몽구 독대 후 '30억+30억' 지시" 기록

-한재, 주 2회 재판... '2말3초'면 탄핵 결론? '1말'일수도

[뉴스듣기능력평가] 속도내는 한재심리...차 옥살이도 성큼?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엘바라데이(전 IAEA사무총장)은 반기문의 미래다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동국제강 4세 장선익, 술집에서 양주병 깨며 행패부리다가

-표창원 정치입문 1년 계기로 보는 내부고발자와 사회적 보상

[공화국 논평] 개보신당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오른 최순실

東亞日報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

대통령 박근혜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 최순실이 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블랙리스트는 최순실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배제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 국가정보원 인적 정보가 동원된 단서를 잡고 관계자 소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속도 내는 특검

東亞日報 특검, 문형표 새벽 긴급 체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 아침에 긴급체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다. 문형표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朝鮮日報 정윤희도 출국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윤희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정윤희 문건'과 관련한 사항을 재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곧 정윤희를 불러 국정에 개입했는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보도, 시금석이다. 특검 수사의 진정성 말이다. 잡아내면 특검 수사 믿을 수 있다.

jtbc “차, 정몽구 독대 후 60억 수수 지시”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독대를 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독대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지시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 내용은 '30+30'과 '60'이라는 숫자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현대차그룹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에 각각 30억원씩 모두 60억원 정도를 내기로 했고 박근혜가 이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재벌 기업들에게 직접 출연금까지 요구했거나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자로 동영상 후폭풍

중앙일보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파장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다큐멘터리 ‘세월X’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잠수함 등의 외부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월X’는 하루 만에 33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일부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만난 과학자 대부분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군은 잠수함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라며 허위 사실 영상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통화한 잠수함 전문가는 잠수함은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잠수함 충돌은 감추기 힘들만큼 큰 사고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은닉됐다는 주장은 과도한 추론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잠수함 전문가는 자로의 진실을 향한 탐구 노력은 높이 산다고 했다.

jtbc 박근혜, 세월호 다음날 ‘시술 흔적’

jtbc가 대통령 박근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인 17일 사진에서 주삿바늘과 멍 자국을 발견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17일 사진에서 보인 자국이 실 리프팅 시술 흔적이라는 분석했다. 만일 시술이 실제로 있었다면 바로 전날인 참사 당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일당의 근황

朝鮮日報 2말·3초에 탄핵 결론 날 듯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3일 첫 공개 변론을 열고 이틀 뒤인 5일 2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두 차례씩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개 변론이 10차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공개 변론을 10차례 열 경우엔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변론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간단한데다 박한철 소장 의지가 있다면 1월말도 가능하다는 게 ‘정봉주의 전국구’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견해기도 하다.

TV조선 정유라, 스위트룸에서 호화 도피

정유라가 독일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혼자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카를스루에’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는 것인데 이곳은 프랑스는 차로 15분 거리, 스위스도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또한 언제든지 이 곳을 떠날 수 있도록 숙박 계약은 짧게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민들 사이에선 프랑크푸르트 곳곳에서 정유라 목격담이 회자된다.

한겨레 박사모, 어르신들 추위에 ‘골머리’

박사모의 ‘맞불 집회’가 6주째 이어지며 주최 쪽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한겨울 추위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또한 야간 집회 종료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항의가 심했다고 한다. 임금인상 요구가 뒤 따르겠지만.

경향신문 최경환 “남아 얘기 좀 듣고 가라”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보좌관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의하면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은 국회를 찾아온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들에게 “남아서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최경환 의원 측의 보좌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들에게 최경환 의원 인턴 출신인 황모씨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들

국민일보 전문성 없는 방역, AI 대란 키워

AI가 발생한 34개 시·군 가운데 4곳은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축방역관이 없는 곳은 70곳이나 됐다. 한편 소규모 농가 방역을 위한 정부의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AI 발생은 전문적인 방역 인력 부족이 빚은 인재다.

東亞日報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우울-불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꼭 1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일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새로 진단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할머니는 합의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현금의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오늘의 칼럼

세계일보 “그들만의 새판짜기”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하는 오늘의 칼럼은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의 ‘그들만의 새판짜기’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결국 구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야 대선 전략가들의 말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 전 대표에 맞선 ‘반문재인’ 구도가 뚜렷해지는 이유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반문’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선거에서 구도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차기 지도자가 될 후보들의 자질, 리더십 검증이 소홀해지는 흐름이 마뜩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키맨’들이 판을 짜는 데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모양새가 그렇다. 정치인들이 판을 짜면 국민이 표를 몰아주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실패한 리더십의 원인을 따지고 대체할 리더십을 검증대에 올릴 시점이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문재인이 대선 안 된다’는지도 알 수 없다.”

12월 29일(목) 바로 내일!
13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교회
19시 광주 금남로 YMCA
김용민브리핑호남공개방송
이원배 기자 출연